

날짜 2004년 5월 20일

통신서비스

하반기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예상

- 정통부, 9월부터 VoIP에 착신번호 부여 허가 전망
- 하반기부터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기대
- 유선통신 시장 내 경쟁심화 예상, 이는 KT에 부정적

정보통신부는 전일(5월 19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 하반기부터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통부는 VoIP를 기간통신업무 서비스로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VoIP 사업자에 일반 시내전화와 마찬가지로 착신번호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유선통신 시장 내 경쟁심화 및 요금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는 K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침내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기반 마련

지난 1999년 새롭기기술이 제공한 다이얼패드에서 시작된 VoIP 서비스는 도입 초기에 값싼 통화료로 각광을 받았으나, 낮은 통화품질 및 착신번호의 부재로 대중에 확산되는데 실패하여 지난 몇 년간 표류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제도가 바뀔에 따라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당사는 높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기술혁신등에 힘입어 VoIP의 통화품질이 머지않아 MOS(통화품질 측정수단) 4.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일반 유선통신 전화의 MOS인 4.1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한편 VoIP에의 착신번호 부여 허가는 VoIP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KT의 가입자 이탈이 우려된다.

LNP와 함께 VoIP는 하반기 유선통신 시장의 화두가 될 전망

당사는 하나로통신, 데이콤 및 소규모 VoIP 업체와 같은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2004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들 업체 중 하나로통신과 데이콤은 고정가격에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및 VoIP를 포함한 종합 패키지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LNP(시내전화 번호이동성)는 타 업체로 서비스 전환시 전화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번호이동이 한결 쉬운 편인데 2004년 3분기부터 420만 가구 및 200만 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의 LNP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통부는 경쟁 촉진을 위해 VoIP 사업자의 자율 요금제 도입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일부언론이 보도하고있다.

VoIP - 저렴한 통화 대안인가?

인터넷 전화 요금은 특정한 경우(특히 시외 전화의 경우) 일반전화 서비스보다 50% 낮을 수 있다. 그러나 KT에 지급하게 되는 분당 접속료(현재 분당 15원 안팎)를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큰 폭의 요금 인하 효과(특히 시내 VoIP 사업자들의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T 역시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함께 고유의 VoIP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발간된 당사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VoIP 및 LNP와 같은 악재가 KT의 전화 시장 및 ARPU(1인당 평균 매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KT의 통화량이 10% 감소했을 때 전화 ARPU는 4% 감소하고 EBITDA는 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사는 KT에 대한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KT 투자판단 및 적정주가 변경

발표일자	투자판단	적정주가
2003년 02월 05일	매수	67,400원
2004년 01월 29일	매수	60,500원
2004년 02월 05일	매수	58,400원
2004년 05월 06일	NA	-
2004년 05월 18일	중립	40,000원

투자등급 **매수:** 6개월 수익률 +15% 이상, **중립:** 6개월 수익률 -15% ~ +15%, **축소:** 6개월 수익률 -15% 이하 (2003년 2월 10일부터 적용)

당사는 상기 KT 종목 주가에 연동한 개별주식워런트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6개월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 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